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경흥이 미륵신앙을 유식으로 품 까닭은?

원효설 취사...독자적 사유 지평 열어

1. 문무왕의 '국사' 추천

경흥(景興, 景興)은 신라 문무왕(661~681)과 신문왕(681~192)대에 활동했던 고승이다. 그는 법상종계의 학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저술목록을 일별하면 불교 전 방면에 걸쳐 깊은 천착을 보였다. 현존 저술을 중심으로 보면 경흥은 정도교학에도 깊은 관심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속성은 수씨(水氏)였으며 웅천주(熊川州) 사람이다. 경흥은 18세에 출가한 뒤 삼장(三藏)에 통달하여 명망이 매우 높았다.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사를 따르는 자가 많아서 일시에 국가의 중추(中樞)가 되었다. 문무왕이 삼국통일 이후 개요(開羅) 원년(681)에 승하하려고 할 때 태자 신문(政明)을 향하여 "경흥법사는 국사로 모시는 것이 좋으니 짐의 명을 잊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고명(顧命)을 하였다. 신문왕이 즉위하자 곧 경흥을 국로(國老)로 봉하여 삼랑사(三郎寺)에 머물게 하였다.

이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흥은 『화엄경』 중 선우(善友) 원병(原病)의 이치를 설하고 그 자리에서 열 한 가지 모양의 가면을 만들어 각 면으로 익살스런(俳諧) 춤을 펼쳐내었다. 기이하고 괴상한 낯선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모두 턱이 빠질 정도로 크게 웃었다. 법사는 그의 괴상한 몸체와 기이한 자태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동안 병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게 치유되었다. 여승은 고요히 문을 나와 삼랑사 남쪽에 있는 남항사(南巷寺)의 불전에 들어가서 숨어 버렸다. 사람을 보내서 그 이를 추적하여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만 11면 관음보살상(開觀) 원년(681)에 승하하려고 할 때 태자 신문(政明)을 향하여 "경흥법사는 국사로 모시는 것이 좋으니 짐의 명을 잊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고명(顧命)을 하였다. 신문왕이 즉위하자 곧 경흥을 국로(國老)로 봉하여 삼랑사(三郎寺)에 머물게 하였다.

2. 원효 학설의 취사 선택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는 국력이 강해지고 문화가 확장되었다. 통일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의 에너지를 통합하면서 신진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웃의 당나라와 대발해 및 일본을 비롯하여 서역까지 교역 하였다. 인도와 서역 및 중국 불교 문헌들은 견당선을 통해 신속히 신라 지식인들에게 전달되었다. 번역된 지론(地論)과 섭론(攝論) 및 기신(起信)학과 긴밀한 구역

신라 불교 삼대 저술가 꼽혀
당유학하지 않고 큰 영향 발휘
국사로 삼랑사 주석하며 집필
약 40종 걸쳐 270여권 저술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 이래 신라는 불교의 신앙이 전독하였다. 때문에 늘 고승을 왕실로 초대하여 법문 듣는 것을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하였다. 아울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國泰民安) 하는 법요를 듣고 뒤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특히 왕은 지의(知義)법사가 측근에 머물며 답소 나누는 것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어느 날 왕은 왜구 침입을 염려하는 법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짐은 후세에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높이 받들고 국가를 수호하려고 하오." 지의는 "용의 축생보(畜生報)란 말씀은 웬일입니까?"라고 물었다. 왕은 다시 "만일 거친 업보를 얻는다면 용이 되는 것이 짐의 본래 마음(本懷)이오"라고 하였다. 문무왕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었던 만큼 경흥을 국사로 추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삼랑사에 머물던 경흥은 홀연히 병을 얻어 한 달 남짓동안 앓았다. 이때 한 여승이 찾아와 문병 하고 간호하는 제자와 법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법사는 불법(大法)을 깨쳐 얻었다고 하지만 사대(四大)가 임시로 화합하여 신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없을 수 없소. 병에는 사대로부터 생기는 네 종류가 있소. 첫째는 풍황담열(風黃痰熱)을 주로 하는 몸의 병(身病)이고, 둘째는 전광환란(顛狂昏亂)을 주로 하는 마음의 병(心病)이며, 셋째는 칼과 몽둥이의 상처와 동자의 과로를 주로 하는 객병(客病)이고, 넷째는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 괴로움과 즐거움을 주로 하는 구유병(俱有病)이오. 그 밖에는 서로의 원인이 잇달아 일어나므로 하나의 요소(一)가 조화롭지 않으면 백 가지 병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오. 이제 법사의 병은 근심과 수고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약재(藥石)로 치료할 수 없으므로 기쁘게 즐기며 크게 웃으면 치유될 것

유식(舊譯唯識)과 신역 유식(新譯唯識)학의 논서들이 속속들이 입수되었다. 원효와 의상은 이들 전적들을 직접 보기 위해 당나라에 두 차례나 유학을 시도하였다. 견당선과 유학승들을 통해 들어온 불교 전적들을 기초로 신라의 불교학은 꽃을 피웠다. 특히 경흥은 원효(100여부 240여권)와 태현(52부 100여권)과 함께 신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삼대 저술가로 꼽혔다. 그의 저술은 현재 조사된 것만해도 대략 40종 270여권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방대한 저술량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은 『무량수경연의술문찬』과 『삼미륵경소』 두 종에 지나지 않는다. 아쉽지만 우리는 이 두 저술을 통해 경흥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엿볼 수밖에 없다. 『삼미륵경소』는 미륵 6부경 가운데 3부경에 대한 주석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거기에는 『미륵상생경요간기』(彌勒上生經略簡記)와 『미륵상생경소』(彌勒



경주 노서동 석불입상. <삼국유사>에는 삼랑사 남쪽에 남항사(南巷寺)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석불입상이 있는 곳이 남항사로 추정되고 있다. 남항사는 경흥 스님의 병을 고친 11면 관음보살 전설이 있는 곳이다.

下生經疏)와 『불설미륵상생경소』(佛說彌勒成佛經疏)가 실려 있다. 원효와 태현처럼 경흥은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 그의 저술은 동아시아 삼국 불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유수 학자들 저술 속에서 경흥 학설을 인용할 정도로 그의 학덕은 널리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비조 진란(親鸞)은 경흥의 저술을 『무량수경술문찬』을 여러 차례 인용하여 논거로 삼고 있다.

경흥은 많은 부분을 원효의 설에 의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륵과 석존의 발심시기에 대해 경흥은 동시(同時)발심설과 전후(前後)발심설을 각기 부정(不定)발심과 결정(決定)발심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발심시기를 회통시켰다.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술전경』과 『현우경』에 설해진 파파리(波婆利)를 각기 생처(生處)로서의 파파리와 양처(養處)로서의 파파리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다시 경흥은 원효에서 나아가

『화엄경』에 실한 구타취락(拘吒聚落)도 양처(養處)로 이해하였다. 또 경흥은 미륵이 염부제에 하생할 당래세수(當來歲數)에 관한 논설에서 "이 경에서는 마땅히 염부제에서는 56억 7천만세로 센다고 이른다"는 대목에 대해 "7천"을 삭제하여 56억 만세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 미륵불의 수량에 대해서도 『관미륵상생도술전경』과의 대교(對校)를 통하여 "대성불경에서 수명이 6백 억세라 한다"로 한 것은 "6만세"의 잘못이라고 했다. 경흥은 미륵불의 당래세수를 셈하는데 있어서 규기(窺基)의 이 설에 전폭적으로 주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흥은 상품(上品)의 상한위(上上位)를 칠지(七地) 보살로 다루었으며, 용화삼회인(龍華三會)을 상중하의 삼품인(三品人)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소승제자(小乘弟子)로만 다른 원효와 달리 대승제자(大乘弟子)로도 다룬 것은 규기의 설과 상통하였다. 또 중품인을 위해 설한

것이 『상생경』이며, 하품인을 위해 설한 것이 『하생경』과 『성불경』이라는 길장(吉藏) 및 원효의 설과 달리 경흥은 『상생경』이 중품인 뿐만 아니라 상품인을 위해서도 설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상생경』은 대승장(大乘藏)에 소섭(所攝)시키고 다른 『하생경』과 『성불경』은 소승장(小乘藏)에 소섭시키는 길장과 원효와 달리 경흥은 이 세경 모두를 대승과 소승 양 장(兩藏)에 소섭시켰다. 『상생경』의 서분(序分)을 분단(分段)함에 있어서 경흥은 원효설을 따르고 규기설을 논척하였다. 이처럼 경흥은 다수의 주장을 원효 학설에 의거하면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배릴 것은 배리면서 독자적인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3. 말을 타지 않은 경흥

『삼국유사』 「감동」편에는 '경허우성' 조목이 실려 있다. 어느 날 경흥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자 시종들이 먼저 동문 밖에서 준비를 하였다. 말과 안장이 매우 화려하고 신과 갓도 매우 성대하였다. 때문에 길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피하였다. 이때 한 거사(사문이라고 함)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등에는 광주리를 지고 말에서 내릴 때 밭은 돌인 하마데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리 속을 보니 마른 물고기(枯魚)가 들어 있었다. 시종들이 꾸짖었다. "당신은

'경허우성' 조목서 일화 전해
나무 꺾질 물고기보고 깨달음
평생 좋은말 타지 않고 무소유
수단이 옳지 않으면 문제 강조

장삼을 입고서 어찌 계울에 어긋나는 것을 지고 다니는가?" 거사가 말하였다. "두 다리 사이에 살은 들고기(馬, 生肉)를 끼고 다니는데 비하면, 시장의 마른 물고기를 진 것이 무엇이 흠이 되겠소." 거사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서 가버렸다.

경흥이 문간을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따라가 보라 하였다. 거사는 남산 문수사(文殊寺)의 문밖에 이르러서 광주리를 버리고 사라졌다. 지팡이는 보살상 앞에 걸고 있는 광주리의 말린 물고기는 소나무 꺾질이었다. 심부름 갔던 자가 돌아와 경흥에게 자세히 말하니 경흥이 듣고 탄식하였다. "문수보살이 오셔서 내가 말 타는 것을 경계하심이라." 일찍이 『보현장경』을 보니 미륵보살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세에 염부제(閻浮提)에 출생하면 석가모니불의 말뼌 제자를 제도할 것이다. 다만 말 탄 비구는 제외하여 그들이 부처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뒤로 경흥은 종신토록 타는 말을 타지 않았다. 경흥의 덕과 도의 맛은 승려 현본(玄本)이 지은 『삼랑사비』(三郎寺碑)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일연은 그의 조목 뒤에 다음과 같은 찬시를 덧붙였다. "보현경(普賢經)에 모범을 드리우신 많은 뜻 있건만/ 어찌하여 자손들은 갈고 닭을 졸 모르는가/ 등에 진 마른 물고기 오히려 가하다면/ 훗날 용화수에 불법 저버리면 어이하리." 본디 '찬'(讚)은 해당 조목이 미묘하거나 부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인의 안목으로 경지(景智)나 일화(後事) 등을 덧붙여 형상화한 시이다. 이 때문에 찬은 '시'이며 '찬시'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시에서처럼 앞의 두 구절은 미륵보살이 『보현장경』에서 모범을 드리우신 미륵보살의 원행에 견주어 자손들이 보다 더 같고 닭을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일연은 설사 경흥이 두 다리 사이에 살은 들고기를 끼고 다녔다 해서 거사의 등에 진 마른 물고기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륵보살은 말뼌 시대에 제자를 제도할 것이라고 발원하지 않, 말을 탄 비구는 제외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좋은 '말'을 탄다는 것은 오늘 날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일 것이다. 일연의 어법을 빌리면 무소유(공동소유)를 강조하는 불교가 중생 제도를 위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좋은 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옳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것은 마치 '두 다리 사이에 살은 들고기를 끼고 다니는' 경흥보다 '등에 마른 물고기를 지고가는' 거사가 오히려 옳다'고 한다면 훗날 용화수에서 불법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묻고 있다. 이것은 '목적'(警戒)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枯魚를 지)이 옳지 않으면 모두가 문제라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경흥 자신은 문수보살의 경계를 받아들여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았다. 이처럼 경흥은 '관음보살'의 화신인 '여승의 보호'와 '문수보살의 화신'인 '거사의 경계'를 함께 받았을 정도로 법력을 갖추었던 고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조영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 경서원, 1980).
안계현, 『한국불교사상사 연구』(동국대출판부, 1983).
김영태, 『한국불교 교전 명칭의 세계』(민족사, 1994).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발자국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 통과시킵니다.
-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펜던트를 끼워줍니다. 다시 마감용 염주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회 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신용신한카드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